## 민족문화연구 제98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98호에는 특집 논문 5편, 일반 논문 19편, 해제 1편 합쳐서 총 25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담정 김려의 문학과 그의 시대'를 주제로 게재된 특집 논문은 '특집의 말'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일반 원고로 수록된 논문은 역사학 9편, 철학 2편, 문학 5편, 미술사 1편, 번역학 1편, 문화콘텐츠학 1편 등이다. 시기적으로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 고루 다루어졌고 각 논문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모든 논문이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한 글이라는 점에서 논문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기보다 논문이 다룬 쟁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할 것이다.

이용진의 "신라 사찰 출토 금속공예의 종류와 제작시기"에서는 신라시대 사찰에서 출토된 금속공예품의 현황을 밝히고 공양구, 장식구, 일상생활용구가 각각 확산된 양상이 상이함을 증명하면서 고려시대 불교공예의 원류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각 공예품이 왕경과 지방 간 확산 방향과 세부 양상을 정치하게 분석하였다.

최종석의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국상 시 황제국 측의 조문 외교 의례의 비교 탐색"은 국왕 사후 황제국 측이 조문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의례 면에서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간에 질적이고 단절적인 차이가 있음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러한 시대적 차이가 말해주는 역사적 함의를 밝혀내었다.

박종진은 "조선초기 태조-세종대 고려대장경의 인경과 그 의의"에서 태조 2년『인경발문』과『조선왕조실록』등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태조 2년, 정종 원년, 태종 13년, 세종 22년에 이루어진 대장경 인경 과정을 집중 분석하고 그 배경과 목적, 의의 등을 밝혀 조선초기 인경사를 기술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다함의 "조선 태종 10년 女眞에 대한 "북정(北征)"의 역사적 맥락과 그 여파"에서는 태종 초반에서 태종 10년에 이르는 조선 내 권력구도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태종 10년 태종이 경원을 침입한 올적합・오도리・올량합 등에 소위 "정벌"을 강행하게 되는 과정과 그 함의를 비판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여진의 수장들이 보인 명과 조선에 대한 입조 태도를 통해 기존 논의와는 다른 시각으로 파고들면서 조선초 여진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강제훈은 “조선 초기의 禮樂 정비와 典禮書 간행—『세종실록』「오례」를 중심으로—”에서 『세종실록』에 부록으로 들어간 「오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검토한 뒤 「오례」 편찬 작업이 종료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용비어천가」로 대표되는 신악의 창제로 보았으며 오례 정리 작업이 신악과 의례의 조합 방식이 확정되는 세조 때에 가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치밀한 분석의 과정이 돋보인다.

송수진은 “조선 전기 부형(父兄)의 위상과 교육적 책무”에서 조선 전기 ‘가(家)’를 대표하여 구성원의 교화와 교육을 책임졌던 부형(父兄)에게 주어진 교육적 책무를 통해 국가가 민간의 가정 교육을 장려하고 통제하기 위해 부형을 활용하는 방식을 밝혀내었다. ‘가’의 책임자이자 국가 정책의 협력자인 부형의 위상과 역할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보인 치밀함에서 논문의 힘을 느끼게 한다.

정욱재의 “황윤석의 義盈庫 仕宦期 의영고의 위상—『頤齋亂藁』를 중심으로—”에서는 18세기 관찬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의영고의 위상 변화에 대해 황윤석의 일기 『이재난고』를 통해 그 역할과 업무 분장, 장무서원의 등장 등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서 당시의 역사상을 기술하였다.

황병기의 “생물 해석관점에 나타난 주역인문학—현륙(莧陸)과 석서(鼫鼠)의 동식물 해석 사례 중심—”에서는 『주역』 경문의 생물 관련 물상(物象)에 대한 주석의 변천 사례를 통해 상징성의 문화적 상대성을 분석하여 주역학을 폭넓은 의미의 인문학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특히 역사(易詞)의 상징성을 동식물 사례를 통해 통시적 양상을 검토하면서 상징성의 시공간적 함의와 차별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시대별 역사(易詞)의 의미 변천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이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김현주의 “잡지 『신생활』의 문화 정치와 러시아혁명사”에서는 최초의 사회주의 잡지 『신생활』이 공론장에서 러시아혁명의 이념을 볼셰비즘의 언어로 정의하고 정당화한 첫 번째 집단적 시도였다는 점, 볼셰비키의 혁명 이념과 혁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경의 배경 및 의미를 해설하였다는 점,

혁명적 지식인의 민중에 대한 사랑 및 노동자, 농민의 비참한 생활과 희생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는 점, 신생활사에 모인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문학 혁신 운동의 모델로 러시아 근대문학과 고리키를 선택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조형열은 "천도교인 차상찬의 역사인식—『별건곤』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차상찬이 쓴 역사 기사는 주로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지배권력에 저항했던 개혁적 인물들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차상찬의 역사인식은 천도교의 교리와 정치·문화운동론으로서 후천개벽을 중요한 목표로 내면에 깔고 있었으며, 인간의 실천으로 역사가 진화한다는 점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김남석의 "극예술연구회의 내부 분열과 조선연극협회의 신규 발족에 관한 연구"에서는 1936년 극예술연구회가 직면한 내부 분열의 과정과 탈퇴 사태, 조선연극협회의 창설 배경과 의의를 당대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극예술연구회가 촉발한 신극 공연이 신극의 대중화, 공연작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당시 연극계 현장과 그 성과를 도출하였다.

김종헌은 "해방기 박영종의 동요·동시 작법론 연구—박영종의 동요집과 평론을 중심으로—"에서 박영종이 『박영종 동시집』, 『초록별』, 『현대 동요선』 등에 발표한 동시, 동요, 해설과 선평 등에서 그가 무리하게 글자 수를 맞춰 넣는 것은 부정하면서 '자연스런 리듬'을 강조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동요가 어린이 노래의 연장이고 따라서 동요에 사용되는 언어는 율동적인 리듬을 살려내야 한다는 작품관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의 놀이와 풍습을 시적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의 귀여움과 추상적인 집단 정서가 드러난 작품이 많았다고 평가하였다.

임송자는 "제주4·3의 진압과정과 선무공작의 전개 양상"에서 제주4·3 진압을 위해 군경 토벌대가 펼친 작전을 초기 성과, 정부수립 이후, 1949년 이후로 나누어 선무공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경분의 "한국전쟁기 포로노래의 역할: 포로 통제수단으로서의 금지곡"에서는 한국전쟁 중 포로들의 노래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는 전제하에 유엔 측 수용소 당국이 강력한 포로 통제를 위해 제정한

금지곡 규정에 주목하여, 금지곡과 관련 규정, 등장 배경을 분석하였다. 당시 노래는 포로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수단이면서도 포로로서는 수용소 당국에 저항하는 수단이었음을 밝히고 유엔의 대응이 포로의 노래에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논증해 내었다.

이은선의 “1930년대-2020년대 ‘백백교 서사’에 대한 계보학적 고찰—식민지적 치안, 도착적 성, 음모론적 자본에 관한 다시 쓰기의 문화적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에서는 1930년대에서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백백교’를 다루는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왔다는 데 주목하여 백백교 서사에 담긴 당대 동시대인의 시각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시대의 특성을 도출해 내었다.

전선하는 “고려인 미술의 문화 혼종성—김 게오르기의 동양적 미의식을 중심으로—”에서는 김 게오르기가 기존의 고려인 화자와 달리 중국 문인의 창작 태도와 기법을 시도한 점에서 동양적 미의식의 세계관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그의 작품이 사물의 형태보다 정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동양 미술과의 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황원준은 “김규동 시의 시간의식 연구—발터 벤야민의 시간관을 중심으로—”에서 김규동의 전기 시가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 미래에 대한 희구와 그 좌절이 주된 시간의식을 이루며, 좌절의 지속된 유예 이후 후기 시에 이르러 진보적인 시간의식에서 현재성으로 가득한 세계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이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벤야민의 ‘지금시간’ 개념과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을 통해 현재적 구원에 이르는 벤야민의 시간관과 유사성을 지니며, 그런 과정으로서의 시쓰기를 통해 김규동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변모과정을 추이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현주의 “영미권 박물관 온라인 사전 자료를 통해 본 한국 관련 역사 인식 및 번역”에서는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포틀랜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컬렉션과 관련한 온라인 용어 사전 및 연표 등에 수록된 기술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한국 관련 표제어 수록, 한국 제도 소개 등 한국 관련 자료가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었고, 한글이 등장하거나

한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한 음역 용어를 채택하는 등 한국의 존재감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반면 기술 태도에서 우리의 관점과 다른 기술 양상과 부정적 함의의 문제를 포착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의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권민혁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국내 문학관의 관광적 활용 양상 분석—코로나 이전 시기의 권역별 양상: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에서는 국내를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누어 문학관의 관광적 활용 형태와 특징을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도출하였다. 권역별 공기 관계와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를 활용할 만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상현은 “『용감수감(龍龕手鑑)』 해제”에서 해당 자료를 요(遼)나라에서 전래되어 유통되었던 자서인 고려본 『용감수경(龍龕手鏡)』을 저본으로 하여 글자의 수를 증보하고, 내용을 교정 및 수정하며, 4권 체제를 8권 체제로 재편집하여 인수대비(仁粹大妃)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판본으로 보았다. 또한 기존의 고려본이나 송본과는 전혀 다른 판본이며, 이후에 간행되는 귀진사본 『용감수감』과 일본 목활자본 『용감수감』의 저본이 되어 중국과는 전혀 다른 판본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으로 스물다섯 편의 글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돌아보니 이번 호에는 중견 학자들의 글이 여러 편 실려 무게감을 더하였다. 또한 치밀하게 자료에 천착하고 전에 없던 인식을 앞세운 소장학자와 대학원생의 글도 함께 게재되어 한국학 연구의 전 세대가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번역학, 문화콘텐츠학의 시각과 방법론으로 해당 논점을 밀도 있게 다룬 논문도 게재되어 한국학 분야의 종합지다운 면모도 보였다.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널리 읽혀 새로운 쟁점을 형성하고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본 학술지는 한국학의 스펙트럼 안에서 활동하는 관련 연구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다. 적극적으로 투고하시기를 기대한다. 民硏 RIMS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